

No.6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0. 26 ~ 11. 1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Japan Weekly Digest (No.6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동아시아공동체 심포지움 개최
- 한국 2차전지 글로벌 1위, 소니와 격차 더 벌려
- 세계경영자회의 개최
- 일본, 한국 '性 평등 후진국'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하토야마 총리, 국회 첫 연설
-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한국 화물선 충돌사고,
하토야마 총리 한국 배려 발언
- 여3당 '외국인 참정권 임시국회 처리 곤란'
- 日が정용 태양전지 올해 2배 늘어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재생에너지 전량 회수제도 도입을 위한 PT 발족
- 국제통상정책 논의를 위해 각료위원회 설치
- 2010년도 세제개정안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
- 광공업생산지수 7개월 연속 상승, 회복경향 지속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엔고시대 한일 부품소재 교역과 경쟁력 변화 및
시사점, KIET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○ 동아시아공동체 심포지움 개최

- 29일 도쿄에서 개최, 한국에서 서울대 박명규 교수 등이 참석하여 경제연계의 필요성을 주장
- 공동연구를 통해 3국간의 신뢰관계 형성의 필요성 및 장기적으로 경제연계를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과 국가 간의 평화촉진을 강조

○ 한국 2차 전지 글로벌 1위, 소니와 격차 더 벌려

- 한국 2차전지가 올 3, 4분기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전망, 삼성SDI와 LG화학의 매출이 경쟁업체인 일본의 산요와 소니 등에 비해 크게 증가
- 2차전지가 한일 간 대결로 좁혀지면서 기밀노출을 우려해 업체들이 실적 발표 때 2차전지 매출액만 발표하고 판매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

○ 세계경영자회의 개최

- 세계 각국의 경영자들이 모여 경영전략을 논의하는‘세계경영자회의’가 26일부터 2일간 도쿄에서 개최, 역경을 기회로 삼는 공격적 경영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

○ 일본, 한국 ‘性 평등 후진국’

- 세계경제포럼(WEF)이 27일 발표한‘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’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75위, 115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권 차지
- 1위 아이슬란드, 2~4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, 영국 15위, 프랑스 18위, 미국 31위, 러시아는 51위이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59위, 중국 60위, 싱가포르 85위, 인도 114위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하토야마 총리, 국회 첫 연설

-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, 9차례에 걸쳐 '변혁'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2차대전 이후 최초의 정권 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공을 들임
- 52분의 연설 시간은 1970년 이래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한 가장 시간을 기록, 민주당 의원들이 '정권교체', '새 역사' 등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진풍경도 연출
-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인의 정치자금문제, 일본우정 사장 인선 논란, 오키나와(沖縄)현 후텐마(普天間)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 등 3대 난제에 봉착

○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한국 화물선 충돌사고, 하토야마 총리 한국 배려

- 충돌 원인 조사 과정에서 한국 화물선에 불리하게 전개되어서는 안 되며 편견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한국 측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

○ 여3당 '외국인 참정권 임시국회 처리 곤란'

- 일본의 민주당과 사민당, 국민신당 등 여 3당이 최근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합의

○日が정용 태양전지 올해 2배 늘어

- 일본에서 가정용 태양전지 보급이 급속히 확산, 가정용 태양전지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 지원책의 영향, 일본 정부는 태양전지를 설치할 때 발전능력 1kW당 7만엔(약 90만원)을 보조금으로 지급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재생에너지 전량 회수제도 도입을 위한 PT 발족

- 경산성은 가정집에서 발전한 태양광, 풍력 등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력회사가 회수하는 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(PT)을 11월 초순에 발족하기로 결의, 2년 후 제도 도입 목표

○ 국제통상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료위원회 설치

- 27일 나옴시마 경산성대신은 세계무역기관(W T O)의 도하라운드나 2국간 EPA에 대해 논의하는 각료위원회 설치 발표
- 하토야마 총리가 제안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교섭 전략도 함께 논의 예정

○ 2010년도 세제개정안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

- 경산성은 2010년도 세제개정안에 민주당이 공약한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(18%→11%) 방안을 요구할 예정

○ 광공업생산지수 7개월 연속 상승, 회복경향 지속

- 경산성이 29일 발표한 9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.4% 상승, 7개월 연속 상회

○ 9월 완전실업률 5.3%로 소폭 개선

- 9월의 완전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.2% 내린 5.3%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, 한편 기업측의 유효구인비율도 0.43배로 지난달보다 0.1% 상승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엔고시대 한일 부품소재 교역과 경쟁력 변화 및 시사점’, KIET, 산업경제, 2009.10

○ 2007년 엔고 이후 세계시장에서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줄어드는 추세

- 엔고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경쟁력은 향상, 2007년도 흑자규모 364억 달러 육박
 - 세계경기 침체로 비용절감에 직면한 글로벌 외국기업들이 일본에 비해 가격 면에서, 중국에 비해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는 한국의 부품소재 구매를 확대하고 있음

○ 한국의 미국과 중국시장 점유율은 상승한 반면, 일본은 하락

-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10.5%에서 2008년 9.8%, 2009년 9.1%로 계속 감소, 한국은 3.1%에서 3.2%로 소폭 상승
- 중국시장도 같은 기간 중 일본이 16.6%에서 16.4%로 하락하였지만 한국은 14.9%에서 15.1%로 상승

○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만큼 한국 부품소재의 대일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

- 대일 교역에서는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수출이 부진하고 오히려 수입의 대일 의존도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
 - 한국기업의 46%가 핵심부품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대일 의존도가 40.6%로 가장 높음

○ 對세계 수출 확대 등 한국 부품소재의 공급 확대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주요 해외 바이어의 유치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